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골드만삭스, “미 침체 확률 45%로 커져”
- WSJ: JP 모건 CEO도, “관세로 성장 둔화에 물가 상승한다” 경고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 늘린다
- Bloomberg: 모건 스탠리, 은행 부문 등급 하향 조정...침체 리스트 상승 탓
- YahooFinance: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시장 혼란

[미 관세 여파]

- WSJ: 트럼프 관세 정책, 그의 제조업과 AI 진작 정책에도 여파
- CNBC: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미중 무역전쟁 위험 상승

[오일]

- Bloomberg: 유가 60 달러로 급락...사우디, 가격 인하
- WSJ: Shell, 가스 생산 전망 하향 조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항공사, 2025년 전망치 하향 조정...수요 감소로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3월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Chances of U.S. Recession Have Risen to 45%, Goldman Sachs Says

골드만삭스, “미 침체 확률 45%로 커져”

- 골드만삭스는 향후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기존 35%에서 45%로 상승했다고 전망했다.
- 이 기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즉각 보복 관세를 시행한 점을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 해외 소비자들의 보이콧, 긴축적인 금융 환경 등이 맞물리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WSJ 기사

WSJ: Jamie Dimon Warns Tariffs Will Raise Prices, Slow Growth

JP 모건 CEO도, “관세로 성장 둔화에 물가 상승한다” 경고

- JP 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가 세계 문제에서 미국의 확고한 위치에 핵심 역할을 해온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동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그는 그와 동시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인해 기업 투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미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그는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aders Add to Bets on 2025 Fed Cuts With Risk of Emergency Move

트레이더들,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 늘린다

- 오버나이트 금리 스왑에 따르면, 시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네 차례 인하할 것으로 긴급히 베팅하고 있다.
-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 또한 스왑 시장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다만, 다음 정례회의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이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가 부상한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증시는 일단 잊어버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은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organ Stanley Downgrades Banking Sector as Recession Risk Grows

모건 스탠리, 은행 부문 등급 하향 조정...침체 리스트 상승 탓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모건스탠리는 대형 및 중형 은행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이 기관은 4월 7일 발표한 메모에서, 대형 및 중형 은행 섹터의 등급을 ‘매력적인 등급’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in-line)’으로 낮췄다. 금융 자문사와 소비자 금융 종목에 대한 등급도 함께 하향 조정했다.
- 이는 국제 교역의 위축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둔화시키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YahooFinance: Chaos breaks out on Wall Street as Trump tariff fallout continues to rattle markets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시장 혼란

-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 여파를 평가하면서,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 S&P 500 지수는 월요일 오전 한때 1%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2% 이상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잠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1,0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 이 같은 증시의 등락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디렉터인 케빈 해셋 (Kevin Hassett)이 한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관세율 관련 ‘놀라운(great)’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해서 관세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을 써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미 관세 여파]

WSJ: The Ripple Effect Trump's Tariffs Will Have on the Rest of His Agenda

트럼프 관세 정책, 그의 제조업과 AI 진작 정책에도 여파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외국산 원자재와 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그의 목표를 상쇄 시킬 수 있다.
- 현재 의약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정책은 의약 분야의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해, 약가 상승이나 의약품 품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제조업 부흥 및 데이터 센터 건립 정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해온 인공지능 및 에너지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WSJ 기사

CNBC: Beijing's strong counter tariffs raise the specter of an intense trade war with Washington 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미중 무역전쟁 위험 상승

-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중국은 입장을 바꿔 주말 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협상 입장을 철회했다. 이는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지정학 분석 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의 공격적인 대응 기조는 향후 양국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며, 올해 디커플링(decoupling)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 기사

[오늘]

Bloomberg: Oil Slumps to \$60 as Saudis Cut Prices During Markets

Selloff

유가 60 달러로 급락...사우디, 가격 인하

- 유가가 3차례 급락하며 미국 기준 WTI가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브렌트유도 63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력 아랍 경질유 가격을 2022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하하고 OPEC+가 예상치 못한 생산량 증가를 발표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졌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수요가 하루 110만 배럴 감소 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금융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OPEC+ 국가들의 예산에 타격이 예상되며, 사우디는 배럴당 90달러, 러시아는 50달러를 유지해야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IMF에 따르면 사우디는 배럴당 90달러가 필요한 반면, 러시아는 유가가 50달러로 급락하자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운송 및 항공 산업은 낮은 유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지만, 세일 오일 기업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고 은행들은 유가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 모건스탠리는 브렌트유가 이틀간 이 정도 하락한 경우는 1980년대 이후 24번뿐이며, 그중 22번이 경기 침체와 연관됐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Shell Lowers Gas Production Guidance After Unplanned

Maintenance Hit Volumes

Shell, 가스 생산 전망 하향 조정

- 셀(Shell)이 2025년 1분기 통합 가스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 예기치 않은 호주 지역 정비로 인해 가스 생산량이 하루 91만~95만 배럴(석유 환산 기준)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치 93만~99만 배럴보다 줄어든 수치다.

-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도 640만~680만 톤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정비와 사이클론 날씨 영향 때문이다.
- 반면, 업스트림 산업의 생산량은 하루 179만~189만 배럴로 이전 전망(175만~195만 배럴)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 셀은 1분기 오일 거래 실적이 4분기보다 크게 늘고, 가스 거래는 해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업스트림 사업에서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1분기 조정 후 기업 손실은 4억~6억 달러로 예상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Airlines expected to cut 2025 outlooks as travel demand falters 항공사, 2025년 전망치 하향 조정...수요 감소로

- 미국 항공사들이 2025년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발표에서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여행 수요 약화 우려로 미국 항공사들의 주가 목표를 낮추고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10% 이상 글로벌 관세 정책과 캐나다 및 대서양 횡단 수요 감소로 항공주가 급락하며, 델타는 38%, 아메리칸은 45%, 유나이티드가 40% 이상 하락했다.
- 미국-유럽 간 6~8월 항공편 예약이 작년보다 13% 감소했고, 정부 여행 수요도 대규모 정리해고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Syth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의 견고함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3월 미국 경제 상황과 평가

미국경제는 25.3월중 소비가 둔화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심리지표도 크게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성장세가 미약한 모습

시장금리(국채 10년 기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정책기조 변화, 경제지표 발표 결과 등에 반응하며 등락을 거듭하다 보합

연준이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기준 입장을 유지하며 3월 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관세부과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미국 침체 확률 45%로 높아져..."연내 1.25%p 금리인하" 전망도
골드만삭스, 미국 경기침체 확률 35%→45%
"선물시장서 내달 연준 금리인하 전망 53.4%로 높아져"
10년물 미 국채금리 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불과 지난달 이 확률을 20%에서 35%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예측치를 수정한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